

오피니언

다산포럼

조상호



지난 8월 말, 태풍이 빗겨가던 광화문 근처의 레스토랑에 50여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장소의 제한 때문에 K교수의 말처럼 조각조각보다도 힘들었다는 30여년 교수 시절의 그리운 사람들이 초대되었다.

대학과 언론, 예술 주변의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그이를 연결고리로 해서 서로 만나는 반가움이 컸고, 이 자리가 어느 정년 기념식과는 다른 예사롭지 않은 자리라는 점에서 여기에 초대받았음을 감사했다.

재개발로 헐리게 되어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장소도 그렇고, 회비나 화환 하나 없는 분위기는 말할 것도 없고, 잠깐 눈인사나 하고 예의를 다했다고 그의 정년기념 저서 '민주주의와 언론' 환경을 공짜로 쟁겨 중간에 도망갈 수 있는 자리는 더욱 아니었다. 당신이 주인공이며 학계의 가장 큰 어른이 되어, 그리고 사모님과 함께 박수받으며 제자들이 눈물의 추억담을 밝히는 우리에게 익숙했던 어느 정년퇴임 기념식이 아니었다.

식순도 없고 동그렇게 앉아 그냥 돌아가며 사랑방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선배 동료들이 그이와의 에피소드들을 회고하면 당사자인 당신은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며 조용히 듣기만 하는 분위기는 이

자가 정년 퇴임식이 아니라 마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그의 초임교수 축하식처럼 느껴지게 만들었다.

그이가 10년 전쯤 정년기념식을 거창하게 치러드렸을 스승까지도 자리하여 그의

의 대학원 시절을 회고하는 것을 보면 더욱 그러했다. 바늘을 찔러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게 단단히 무장한 단아한 학자 이미지는 사실은 부끄러움을 감춘 갑옷에 불과했음을 고백하는 자리였다. 항상 청년이고 싶어했던 그이인지라 세월을 거슬러 보고픈 욕망도 숨기지 못하고 그 시간이 되면 통과의례처럼 하는 정년식을 갑자기 단정 것처럼 당황하고 무척 속스러워 했다.

그동안 광주가 신근부의 총칼에 불타던 그 해에 그곳의 국립대학 교수가 되면서 처절한 세월의 광주소식을 서울에 전해야 하는 밀사가 된다. 안락한 일상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고혹스러운 메시지를 전해

K교수의 정년 기념식에서...

비겁한 시대와 불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의 운명이었다. 이청준의 소설처럼 젖은 옷을 입은 채 몸의 체온으로 말리면서 이 장엄한 세월을 대학교수로 건디는 일상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 자주 되뇌었다. 이성의 힘으로는 더욱 어쩔 수도 없는 역사의 막장을 보면서 부끄러움 속에 그이가 감추려 했던 무등산의 분노는 안으로 내연할 수밖에 없었다.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지고 말수가 적어지면서 표정은 굳어만 갔다. 가끔 바둑판 앞에서 바둑을 저주기도 하면서 쓸쓸한 미소라도 유도해 보려 했고, 삶은 낡은 잡지의 표지처럼 통속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위로해 보았지만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

지 않았다.

그러던 그이가 서울의 모교로 대학을 옮기고 3년이 지났을 무렵 원고지 3000매 분량의 대작 '한국인론사'를 불꽃 내밀었다. 지난 10년 동안 시간을 보내기 위해 정리한 것이라고 겸손해 했지만 이 책은 그때까지 언론사 연구논문이나 언론인 인물사 몇 편에 그쳤던 언론학계에 특정한 사관에 뒷받침된 통사로서 신선한 충격을 주는 저술이었다.

역사책을 집필하는 일은 오랜 시간 자료를 찾아야하고 사관을 굳건하게 세워야 하는 일인지라 누구도 쉽게 덤벼들려고 하지 않는데 그 일을 해낸 것이다. 그동안의 정신적 내용을 이 책의 집필을 통해 혼자 다스렸던 모양이다. 답답한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스스로의 감옥에 자신을 유배시켜 그이가 할 수 있는 고독한 저항의 몸짓이 화려하게 부활한 것이다. 성불 직전의 환한 미소와 함께였다.

그 K교수가 벌써 장년이다. 앞으로 광화문을 떠나 안도 보길도 해변에 마련한 초당에서 소설이나 시나리오를 쓰겠다는 문학청년의 꿈에 한창 부풀어 있지만 그 음모는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 한국의 언론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책망가 그이를 한가하게 고산 윤선도를 흉내 내며 유유자적하게 내버려둘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주나눔출판 대표이사·고려대 언론대학원 초빙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재정 열악한 광주시 '정부 지원' 제자리라니

최근 5년간 광주시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증가 폭이 크게 줄어든 반면 광주보다 재정이 넉넉한 광역시는 되레 지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도 광주시가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제대로 배분받지 못하면서 6대 광역시 중 재정력지수도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돼 또다른 '홀대'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광주시의 지난 2006년 대비 올해 보통교부세 증가율은 93.1%에 불과하지만, 부산은 438.6%, 대구 187.7%, 인천 441.1%, 대전 182.2%로 광주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부산과 인천의 경우 5년 전에 비해 4배 이상, 대구와 대전 역시 2배에 가까운 재정지원을 받은 것이다.

재정 수입이 부족한 광역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보통교부세의 혜택을 광주시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따

지역시 평균 0.955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통교부세란 원래 재정 수입이 넉넉한 자치단체에는 적게 주고, 재정 수입이 부족한 곳에는 더 지원해 지역간 균형을 잡아주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취지와는 달리 배분되고 있어 지방재정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현재 광주시의 재정 건전성은 최악의 상황이다. 재정자립도만 보더라도 전국 광역시 가운데 최하위인 43.2%에 불과하다. 광주지역 5개 자치구의 부족 예산은 모두 1400억원에 이르고, 당장 발동에 떨어진 예산만 800억원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 보통교부세마저 형평성을 잃은 것은 그야말로 흉년이 아닐 수가 없다. 정부는 지방 재정이 건실해야 국가가 지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특히 현 정부 들어 호남사람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화순광업소 주변 환경오염 모른 체해서야

화순광업소 주변의 환경오염과 주민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데도 대한석탄공사가 이에 대한 현장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지식경제위 김재균 의원이 배포한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화순광업소 인근 500m 이내에 위치한 영산강 상류인 화순천의 경우 5년 전 지역이 광업소 갭내의 산성 폐수로 인한 수질 오염과 석탄의 운송, 적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 먼지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순군 동암리·성덕리·오동리 등 5개 지역 주민들의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석탄공사 측은 갭내 폐수 전량을 폐수처리장을 통해 수질기준에 맞춰 정화 처리 후 방류하고 있어 수질 오염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방류를 설치 운영해 대기오염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석탄공사의 주장을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와 정면 배치된도 대한석탄공사가 이에 대한 현장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지식경제위 김재균 의원이 배포한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화순광업소 인근 500m 이내에 위치한 영산강 상류인 화순천의 경우 5년 전 지역이 광업소 갭내의 산성 폐수로 인한 수질 오염과 석탄의 운송, 적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 먼지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순군 동암리·성덕리·오동리 등 5개 지역 주민들의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석탄공사 측은 갭내 폐수 전량을 폐수처리장을 통해 수질기준에 맞춰 정화 처리 후 방류하고 있어 수질 오염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방류를 설치 운영해 대기오염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한다.

NGO 칼럼

이선희



실크수순 2장을 엮어 만든 핑크리본은 가슴을 꼭 죄던 코르셋 대신 가슴을 가볍게 감싸는 핑크리본 브래지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유방암 예방의식향상과 더불어 여성의 아름다움과 건강, 가슴의 자유를 의미하는 상징물입니다.

유방암은 우리나라 여성이 많이 걸리는 암 중 하나입니다. 자가 진단하는 방법도 있지만, 유방암은 초기 발견만 되면 예후도 좋고 완치도 가능하지만, 많은 여성들의 두려움, 부끄러움 때문에 유방암 조기 검진과 치료의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자가 진단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유방을 스스로 만져보아 유방암을 확인할 수 있지만, 무관심 때문에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발병 연령도 점차 낮아지

보험적용 ▲재건수술 의료보험적용 ▲ 유방암 환우를 위한 전용 목욕탕 건립 등은 유방암 환우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많은 관심과 독자 여러분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나도, 우리 가족도 암에 걸릴 수 있다는 생각에 따뜻한 눈길만 보내도 될 것입니다.

10월은 세계 유방암 예방의 달입니다.

광주·전남에서는 유방암을 앓았던 유방암 환우들이 모여서 건강 지키기 '백일홍'을 결성, 유방암 예방과 유방암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고 회원들의 건강을 위한 건강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유방암 예방 인식을

핑크리본을 아시나요?

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지와 무관심으로 힘들어했던 환우들의 경험담을 일반인들과 공유하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유방암 예방과 자가 검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교육도 요구됩니다. 특히 지난해 서구 보건소에서 자가검진 교육 실시 후 초기 유방암 환자를 발견해 소중한 생명을 구했던 사례를 보며 그 필요성은 더욱 절실히 느껴집니다.

'나는 아닐 거야', '살마 내가 알아졌어?',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유방암이야?' 이런 안이한 생각에 병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유방에 물음이 잡혀도 무심코 지나간다면 생명까지 위협해줍니다. 촬영술만으로는 완벽하게 암을 진단할 수 없습니다. 초음파검진으로 보다 정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또 ▲중증환자 기한 연장 ▲유방암 환우 장애인 등록 ▲인조브래지어 의료

보험적용 ▲재건수술 의료보험적용 ▲ 유방암 환우를 위한 전용 목욕탕 건립 등은 유방암 환우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많은 관심과 독자 여러분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나도, 우리 가족도 암에 걸릴 수 있다는 생각에 따뜻한 눈길만 보내도 될 것입니다.

10월은 세계 유방암 예방의 달입니다.

광주·전남에서는 유방암을 앓았던 유방암 환우들이 모여서 건강 지키기 '백일홍'을 결성, 유방암 예방과 유방암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고 회원들의 건강을 위한 건강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유방암 예방 인식을

<건강 지키기 백일홍 회장>

구멍 파인 도로 사고 예방위해 발견 즉시 신고

평소에 길을 가다 어디든 도로에 구멍 뚫린 곳은 바로 신고해야 한다. 운전자를 하고 다니다 보면 차가 덜컹 덜컹 소리가 나면서 심하게 흔들려 내려가서 확인해 보면 아스팔트 도로인데도 구멍이 뚫린 곳이 많다.

얼마 전에는 광주 백운 고가 중앙선 옆에도 폭 70cm 정도가 구멍이 뚫려서 차들이 피해서 가고 있었다. 그 구멍에 차 바퀴가 들어가면 큰 사고가 나지 않을까 염려되어 시청에 연락했던 적이 있다.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구멍 뚫린 도로를 보고 구청이나 시청에 연락하면 바로 보수해 주기 때문에 누구든 발견한 즉시 신고를 해야 한다.

최근 뉴스에 길가 맨홀 뚜껑 옆에 구멍이 뚫려 차가 뚫린 구멍 위를 가다가 큰 사고가 났다는걸 들은 적이 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빨리 신고하여 큰 사고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김순복·광주시 남구 주월동

기고

하영철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광주에도 문화수도에 걸맞은 세계에 내놓을 만한 문화유적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의향(義鄕), 예향(藝鄕)이라고 큰소리를 쳐보지만 세계인에게 내놓을 만한 게 없어 안타깝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라도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으련만 별관 건물의 보존 문제로 2014년에야 완성된다고 답답하다.

예술의 거리에 가면 밤에는 하늘을 덮고, 야간에는 눈부시게 반짝이는 네온 시선이 예술과는 동떨어진 이미지를 느끼게 하고, 금남로4가에 있는 메트로

먼저 사직공원을 광주의 예술공원으로 만들었으면 하고 생각한다.

광주에는 수많은 예술인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들이 오픈된 공간에서 자기의 예술품과 작품 활동을 세계인에게 보일 수 있는, 프랑스 파리의 몽마르트 언덕 같은 예술인의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곳에 벗어난 전통차집도 만들어 우리 광주의 문화를 보고 듣고 맛볼 수 있는 광주만의 특유의 예술·예술인의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

둘째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누구나 갖고 있는 끼를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다. 노래, 무용 등을 거리 곳곳에서 듣고 볼 수 있는 광주를

광주, 진정 문화수도인가

갤러리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는 갈 수 없이 수많은 계단을 올라가야만 들어갈 수 있어 불편하기 짝이 없다. 광주 시내 어디에서도 이렇다 할 광주만의 독특한 문화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이 힘이 빠진다.

우리 광주가 문화수도로서의 면모를 자랑할 수 있게 가꿀 수는 없는걸까. 외국인이 별로 찾지 않는 비엔날레와 김치축제, 그리고 유형문화재의 빈곤은 문화재가 더 많은 도시이다. 이제 세계인이 찾아올 광주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어야 할 때이다.

'광주에 가서 금남로를 걸어보고 예술인의 공원에 둘러보라. 그리고 광주탑에 올라 5·18을 생각하고, 케이블카로 무등산에 올라보라.' 광주를 방문한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게 하자. 광주의 거리거리마다 볼거리, 맛거리, 느낄거리가 있음을 보여주자.

우리 광주가 하루빨리 의학, 예향의 중심도시, 문화수도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미래로 학교교육 도우미 대표>

만들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5·18을 기념하는 광주타워를 만들고 그곳에서 무등산까지 케이블카를 놓았으면 좋겠다. 일본의 도쿄 타워보다, 파리의 에펠탑 보다 더 높고 멋있는 광주타워를 만들고 무등산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세계인이 무등산의 아름다움을 쉽게 접할 수 있게 했으면 한다.

우리 광주는 유형문화재보다는 무형문화재가 더 많은 도시이다. 이제 세계인이 찾아올 광주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어야 할 때이다.

'광주에 가서 금남로를 걸어보고 예술인의 공원에 둘러보라. 그리고 광주탑에 올라 5·18을 생각하고, 케이블카로 무등산에 올라보라.' 광주를 방문한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게 하자. 광주의 거리거리마다 볼거리, 맛거리, 느낄거리가 있음을 보여주자.

우리 광주가 하루빨리 의학, 예향의 중심도시, 문화수도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미래로 학교교육 도우미 대표>

無等鼓

가수 타블로(본명 이선용·30)를 둘러싼 학력 논란이 일단락됐다. 경찰이 그의 미국 스탠퍼드 대학 졸업 사실을 공식 확인함으로써 논쟁은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보인다.

사건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그가 '에픽하이'라는 합합그룹을 결성해 한국어로 활동을 하면서도 이례적으로 미국의 명문 스탠퍼드대 영문학 학·석사 과정을 이수한 학력이 밝혀지며 큰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어떻게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었겠느냐는 '시기'가 깔린 의혹이 증폭되기 시작했다. 마침내 2009년 한 누리꾼이 스탠퍼드 대학 졸업자 명단에 타블로의 이름이 없다는 이유로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했다. 타블로는 수차례 증거를 제시했으나 누리꾼은 또 다른 의구심을 제기해 논란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타블로는 결국 올해 4월 경찰에 약력 1명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일부 누리꾼은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

구한다)라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본격적으로 의혹들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스탠퍼드대 측은 타블로의 학력을 공식적으로 인증했으나 누리꾼들은 약성 댓글과 학력 위조설로 맞받았다. 타블로는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그가 '에픽하이'라는 합합그룹을 결성해 한국어로 활동을 하면서도 이례적으로 미국의 명문 스탠퍼드대 영문학 학·석사 과정을 이수한 학력이 밝혀지며 큰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어떻게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었겠느냐는 '시기'가 깔린 의혹이 증폭되기 시작했다. 마침내 2009년 한 누리꾼이 스탠퍼드 대학 졸업자 명단에 타블로의 이름이 없다는 이유로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했다. 타블로는 수차례 증거를 제시했으나 누리꾼은 또 다른 의구심을 제기해 논란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타블로는 결국 올해 4월 경찰에 약력 1명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일부 누리꾼은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

타블로



지난 8일 경찰이 스탠퍼드 대학 졸업학력이 사실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지만 논쟁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의 배경에 어려운 여건에서 성공한 사람을 쉽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한국인의 '인식함'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도 타블로의 처지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극단적으로 거부하는 비합리적 심리 상태가 노출된 현상으로 해석한다. 타블로 공방은 오늘을 살아가는 한국인의 속마음을 들춰주는 점에서도 되새겨볼 사안이다.

/박지경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